

한국교육학연구 제22권 제3호
The Korea Educational Review
2016. 9. Vol.22. No.3. pp.149-167.

미적 경험의 예술교육적 가치*

박주희(한국체육대학교)

[요 약]

이 논문은 듀이의 예술론에 기초하여 ‘미적 경험(aesthetic experience)’의 개념을 명료화함으로써 예술교육이 지향해야 할 바를 구체적으로 드러내려고 한다. 예술적 사고의 성격을 보여주어 교육 가능성으로서 예술교육의 성격과 지향점을 도출해 낼 것이다. 교육과 예술의 연관성을 미적 경험으로 연결하여 미적 경험을 토대로 한 예술교육이 풍성한 인간의 삶을 제시하고 나아가 예술교육이 가진 힘은 민주주의 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을 밝히려고 한다. 미적 경험이 가진 고유한 개념적 의미를 찾아내고 교육적 시사점을 드러낸다. ‘하나의 경험’(an experience)과 미적 경험이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어 교육적 성장을 지향함을 서술한다. 예술교육이 삶과 연관되어 미적 경험을 가능하게 되었을 때 미적 경험이 교육적 가치를 가지게 됨을 제시한다. 이 연구의 결과, 미적 경험을 토대로 한 예술교육은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갖는다. 첫째, 완성된 경험으로서 미적 경험의 의미를 명료화한다. 둘째, 예술교육이 미적 경험을 지향하면 현행 예술교육의 문제점을 드러내준다. 셋째, 예술이 경험에 기반함을 논증하여 인간 본연의 창의성과 상상력의 힘을 제시한다.

주제어 : 미적 경험, 예술 교육, 듀이, 하나의 경험, 민주주의

*연구자의 박사학위 논문 『존 듀이의 미적 경험에 토대한 예술교육 연구』의 일부를 수정 보완한 것임.

I. 서론

예술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미술, 음악, 무용, 체육, 문학, 연극 교육 등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상 교육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예술과는 무관해 보이는 경우가 많다. 예술교육이 단지 교과라는 형식적 틀 안에 있어 정작 왜 예술교육이 인간에게 필요한지 교육적 고민이 더욱 요구되는 시점이다. 예술교육이 미적인 경험이기 보다 기능적으로, 경쟁적으로 점수화되고 기술적인 실력을 키우는데에 급급하고, 한국의 입시 현실에서 다른 교과에 밀리기도 한다. 이러한 현실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예술교육이 현대인에게는 더욱 더 절실하게 요구되는 상황이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미적인 감각은 디지털 세계에까지 뻗어나가 더욱 더 아름다운 예술적 요소를 필요로 하고, 인공지능이 인간 삶의 여러 영역에 스며들면서 인간의 상상력과 창의성은 그 자체로 콘텐츠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예술교육은 이제 전통적 방식의 수업으로는 그 역할을 하기 어렵다. 미술 시간에 붉은 색, 푸른 색의 다양함을 관찰하고 다양한 색을 경험하는 것이 아닌 오로지 한 장의 그림을 그져 보거나, 그래서 수업 시간 안에 후다닥 제출하고 마치는 전통적 수업방식 말이다. 왜 인상주의 작품이 유명해 졌는지, 이러한 작품을 그려낸 화가는 어떠한 고뇌를 했는지 알려주지도 않고 그것의 의미를 파헤치지도 않는다. 작품 속에서 무엇을 느끼는지 토론할 기회도 거의 없으며 작품의 제목과 연도, 각종 사조들을 외워 시험 보기에 바쁠 뿐이다. 다른 분야 역시 마찬가지이다. 무용의 아름다움, 혹은 인간 몸의 아름다움이 아닌 체조도 아니며 춤도 아닌 애매한 것을 제대로 배우지도 않고 무용이 인간에게 왜 필요한 것인지 의미도 알지 못하며 그 시간을 때운다. 음악 시간에 단소 하나 들고 한 곡만 연습하여 시험을 보면 끝이다. 피아노 학원에서 손가락을 맞아가며 배운 피아노는 결국 피아노라는 악기를 멀리하게 하고 피아노 선율의 느낌을 경험해 보지 못하게 한다.

거기에 어떤 미적 경험에 관한 대화나 이야기, 소통이 부재함을 알 수 있다. 오히려 학생은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선생님이 싫어한다는 것을 배웠으며 그것이 ‘하나의 경험’으로 자리잡았을 것이다. 정작 중요한 그림에 대한 배움이나 대화는 사라져버린 것이다. 왜 붓 터치를 그렇게 했는지, 왜 얼굴에 이 색을 칠했는지 등과 같은 색에 대한 감수성을 키우거나 그 의미를 찾아내는데 열중하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학생은 고흐의 작품이나 샤갈의 작품을 보더라도 그것이 왜 미적 경험을 일으키게 하는 작품인지 알기 어렵게 된다. 작품 속의 구도와 색에 대한 감각들을 배워야 할 시간에 미술이 가지는 불편함만 배우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예술교육의 한계점은 다음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성찰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학생이 미술 시간에 비행기를 그렸다가 수업이 끝날 즈음에 비행기를 다 지우고 백지를

제출하였다. 이때 교사가 학생이 그린 그림 작품이 전혀 남아 있는 것이 없다고 판단하고 미술 점수를 주지 않고 다시 그리라고 시킨다. 학생은 자신이 비행기를 다시 지워버린 이유가 비행기가 날아가 버렸기 때문이라고 교사에게 설명을 했음에도 말이다.¹⁾ 둘째, 미술 시간에 ‘선생님 그리기’를 했는데 학생이 선생님의 얼굴을 괴물처럼 그렸다. 이 그림을 보고 교사는 학생의 인성이 문제라고 여기고 그림을 다시 그리도록 시켰다. 이런 예시들을 보면 교사는 예술이 마치 점수를 주기 위한 과제와 같은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며, 아이들의 마음을 인위적으로 바꾸려는 교육적 수단으로 그림 그리기를 만들어 버린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교사가 강제로 학생의 작품을 망가뜨리고 왜곡시켜 버린 것이다.²⁾

이러한 수업 속 상황을 보면 듀이의 예술관, 즉 미적 경험이 이루어지는 교육에 대한 단상이 우리나라의 예술교육에 특히 필요함을 느끼게 된다. 미적 경험이라는 토대위에 서게 되었을 때 수업 안에서도 예술에 대하여 자연스러운 접근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이다. 예술교육은 단지 박물관, 미술관, 전시장에 가서 큐레이터의 설명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큐레이터가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 적고 마치 그것이 작품을 이해한 것과 같다고 착각하는 것이 예술교육일 수는 없는 것이다.

편파적인 이론 중심적 교육 또는 한쪽으로 치우친 실기 중심의 교육들은 미적 경험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예술교육은 미적 경험이라는 토대위에 있을 때 비로소 수업에서 예술에 대하여 자연스러운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예술교육으로는 예술을 삶에 연관하여 받아들이기 어렵고 예술이 가진 힘 역시도 발휘되기 힘들다. 예술교육이 암기하고 지식을 쌓는 전통적 수업을 고집하게 되면 예술교육은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연구자는 예술교육의 목적과 방향을 미적 경험이라는 개념을 토대로 접근하려고 한다.

1) 2013 아르떼 아카데미 인문기움 2차 교육, 철학적 탐구 공동체와 문화예술교육 세미나에 연구자가 참여하여 경험한 사례이다.

2) 생각하면 언제 한국에서 예술교육이 학생들을 진정한 의미에서 예술의 아름다움에 눈뜨게 만들었던 적이 있었는가? 예술의 목적은 보는 것, 곧 느끼고 즐기는 것이 아닌 것 자체일 수 없다. 이는 학생들이 예술을 접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아이들 역시 예술을 학습이 아닌 유쾌한 놀이와 취미로 즐겨야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예술교육의 과제는 아이들로 하여금 자유롭고 유쾌한 분위기 속에서 예술작품을 접하게 하고 이를 통해 미적 향유의 능력을 계발하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일 수 없다. 그러나 한국의 학교에서 예술교육도 시험에 종속된 학습이 되어버린지 오래다. 모든 것이 점수로 계산되는 학교에서는 노래를 잘 부르고 못 부르는 것도 점수로 계산된다. 과연 이를 통해 학생들의 마음에 음악을 사랑할 마음이 생기겠는가? 미술교육 역시 마찬가지이다. 미술가들과 미술사조의 이름을 외우는 것일 뿐, 미술 그 자체를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지 못한다. 예술작품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그것의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 모든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음악이나 미술교육에서 각 예술에 대한 지식을 가르치는 것은 감상을 위해 필요하고 감상을 위해 기여하는 한에서만 의미있는 일이다.(김상봉, 2004: 270 참고)

II. 본론

1. 예술교육의 의미

예술교육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여 정의할 수 있다. 예술교육의 목적, 대상, 수단에 따라 각각 ‘예술을 위한 교육’(education for arts), ‘예술을 통한 교육’(education through arts) ‘예술에 의한 교육’(education by arts)으로 개념화하여 나눌 수 있다.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과 같다.

첫째, 흔히 예술이라고 불리는 영역에서 기능적으로 또는 기예적으로 연습이 필요한 경우로서 예술교육이 있다. 예를 들어, 음악분야에 작곡가, 각종 악기의 연주자, 지휘자, 성악가 등과 미술분야에 화가, 디자이너, 공예가 등 연극분야에 배우나 안무가 등등의 실질적인 예술인 직업과 관련된 경우를 말한다. 이들에 대한 교육 역시 예술교육이라고 말한다. 즉, 예술을 위한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예술 분야 전공자는 아니지만 취미나 혹은 교양으로 음악이나 미술, 연극 등을 배우는 수업을 예술교육이라고 지칭한다. 이것은 예술을 통한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국어나 수학, 과학, 철학 등과 같은 수업을 예술적으로 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경우 역시 예술교육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을 예술에 의한 교육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다. 달리 말해 ‘미적 교육’ 또는 ‘예술교육’이라고 칭할 수 있다.

미적 교육은 예술교육보다 포괄적이며 동시에 세부적으로 예술교육을 정의하는 것으로 이때 예술교육이란 음악, 미술, 문학, 무용, 연기 등과 같은 교과 과목으로서 존재하는 형식적인 예술 영역이 아닌 예술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이루어질 수 있는 예술 창조, 예술 감상을 포함하는 예술 관련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한명희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예술교육에서는 흔히 심미적 교육(Aesthetic Education)이라고 하는데, 이것과 예술교육(Art Education) 개념의 관계를 우선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심미적 교육의 과목(subject-matter)이 예술이고, 이 예술은 모든 종류의 매체에 있어서 예술의 창조(making of art)와 예술감상(the appreciation of art)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예술교육은 심미적 교육을 내객중심(內客中心), 즉 탐구영역 중심으로 개념화한 명칭이다. 그것을 바꾸어 말하면 예술이란 심미적으로 만들고 감상할 수 있는 모든 대상, 경험, 산물 행위를 다 포함하는 것으로, 예술교육이란 이러한 심미적 대상 경험, 산물 행위를 교육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심미적 교육은 예술(음악, 미술, 무용, 문학, 연구 등)을 통한 교육, 즉 예술교육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에 있어서 심미적 형태와 차원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심미적 교육이란 심미적 경험을 통하여 심미적 가치의 형성을 위한 것인데,

가장 집중적으로 이러한 경험이 이루어지는 분야가 예술이므로 심미적 교육의 중심이 예술교육임은 말할 것도 없다. <중략> 예술교육의 교육적 가치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심되는 것이 심미적 경험에 대한 이해이다.(한명희, 2002: 94-95)

앞서 제시한 대로 예술교육이라는 개념이 다소 혼란스러운 이유는 예술교육의 대상과 방법이 서로 구분되기 때문이다. 그러한 이유로 예술이 곧 교육이 되는 경계가 모호한 부분이 발생한다. 실제로 예술교육과 관련한 포럼이나 세미나는 이에 대해 양쪽 모두에서 접근하는 방식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2015년 세계 문화예술기관연맹(European League of Institutes of the Arts, ELIA) 교육자 아카데미(The Teachers' Academy)의 주제는 ‘실행: 예술과 교육(ENACT: Learning in/through the Arts)’이며 여기에서 하부적인 내용으로 두 개의 테마 ‘교육의 예술적 전략(Artistic Strategies in Education)’과 ‘예술의 교육적 실천(Educational Practices in the Arts)’을 설정했다. 하버드 대학 프로젝트 제로(Project Zero)는 하버드 대학교의 교육대학원에서 ‘교육 속 예술(Arts in Education)’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정책, 행정이 등을 포함하여 예술교육 및 교수법을 기획하여 발표하였다. 이러한 추세를 보면 예술교육의 의미가 매우 포괄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실제 예술교육이라는 개념이 광의적 뜻을 내포한 것임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예술교육의 의미는 예술과 교육의 관계로 더욱 자세하게 들여다 볼 수 있다. 리드(H. Read)는 예술의 본성과 교육의 목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예술의 본성을 자연 현상의 세계 속에 존재하게 하며, 확실한 본질적 요소 안에서 과학적 법칙에 기초를 둔 척도로 간주하고자 한다. 여기에는 특별한 이견이 없다. 그러나 교육의 목적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하나는 사람의 천성에 맞게 성장하도록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다운 사람으로 교육받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전자는 개인은 그 사람만의 절대적인 가치를 갖는 특성의 잠재력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개인 본래의 운명은 유형의 무한한 변화를 인정하는 자유로운 사회의 틀 안에서 그 잠재능력을 발달시키는 데 있다는 것이다. 후자는 개인이 어떠한 특질을 가지고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 특질이 의지와는 무관하게 소속된 사회의 전통이 요구하는 어떤 이상적인 성격에 합치되지 못한다면 그의 특질을 말소시키는 것이 교사의 의무라는 점이다.(H. Read, 1997: 20)

예술과 교육의 연관성은 인간이라는 생명체가 생명력을 가지며 살아가게 하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생명 즉, 인간의 본성을 중심으로 한다. 이러한 사고를 중심으로 슈스터만(R. Shusterman)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리드(Read)에 의하면 ‘예술교육은 예술을 통한 인간교육’이며, 예술교육에서 예술을 다루는 것은 예술가를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한다. 즉, 예술교육이 예술가를 만드는 교육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 말은 단지 기능적으로 재주만을 가지고 예술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 자체가 가지고 있는 내재적인 목적에 있다는 것이다. 예술의 목적은 전체 생물의 통합된 생명력 속에서 전체 생물을 위해 이바지하는 것이다.(Shusterman, 김광명, 김진엽 역, 2002: 9)

학교에서 예술교육이 필요하다고 할 때 예술교육은 예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교과목 자체뿐만이 아니라 예술을 통한 인간교육으로서 예술교육을 의미하는 것이며, 보다 구체적으로 예술적 사고, 즉 미적 경험을 가능케 하는 예술교육이다.

2. 교육과 예술의 연관성: 미적 경험

미적 경험은 존 듀이의 예술교육의 목적으로서 핵심 개념이다. 특히, 듀이는 미적인 사고가 곧 질성적 사고(qualitative thought)³⁾라고 명명하여 서술하면서 예술이 단지 정서적,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지적, 사고의 과정임을 말했다. 이 말은 미적 경험이 교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에 따라 미적 경험 역시 윤리적이고 지적인 경험이라는 논증이 필요한데 듀이는 다음과 같이 어떻게 미적 경험이 지적 경험일 수 있는지 논증한다.

사고라는 경험은 그 자체의 미적 성질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미적인 것으로 인식되는 것의 경험들과는 다르지만 단지 그 소재만 다를 뿐이다. 예술의 소재는 성질(quality)들로 이루어져 있다. 지적인 결론을 가지고 있는 경험의 소재는 기호나 상징이다. 기호나 상징은 그 자체로는 본질적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또 다른 경험에서는 질적으로 경험될 수도 있는 것들을 나타낸다. 음악은 만인의 사랑을 받는데 반해, 엄밀한 지적 기술은 그렇지 못한 것도 부분적으로는 이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험 그 자체에는 만족할 만한 정서적 성질이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질서있는 조직적인 운동을 통하여 도달한 내적 융합과 완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예술적 구조가 직접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 이러한 한 그것은 미적이다. 성질이 없다면 사고라는 것도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요컨대 지적 경험으로서 그 자체로 완성된 것이 되기 위해서는 미의 각인을 갖추지 않으

3) “이성적 사고가 질성적 사고와 통합되어 작용한다는 것은 예술적 활동에서 아주 잘 나타난다. 예술가는 기본적으로 질성을 다루며, 예술가는 작품을 통해서 표현하고자 하는 질성을 질성적 사고에 의해 포착하면서 본격적인 창작활동을 시작하게 된다.”(박철홍, 2011: 93)

면 안된다. 왜냐하면 미적 경험은 지적 경험에서 유리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AE, 이재언 역: 76)

그런데 예술교육이 미적 경험이 아닌 다른 근거를 가지고 그 필요성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다음 인용문처럼 예술이 다른 과목의 공부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과 같은 것 말이다. 듀이가 이러한 내용을 읽었다면 분명 부분적으로 예술교육이 다른 과목의 학습에 기여하는 바가 있겠지만, 그것 자체를 목적으로 예술교육을 이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논거를 펼쳤을 것이다. 왜냐하면 예술은 수학이나 과학과 같은 과목의 학업성취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외적인 수단이 결코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에게 예술교육의 창의성은 예술적 활동을 통한 삶의 만족이며 삶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을 의미한다. 뎀포드는 예술의 교육적 효과에 대해 예술 안의 교육과 예술을 통한 교육으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예술 안의 교육은 무용, 시각 예술, 음악 등 장르 예술의 표현 방법을 지속적으로 학습하는 것으로 학교와 학습에 대한 태도, 문화적 정체성 확립과 개인적 만족, 복지 면에서 영향을 미친다. 반면 예술을 통한 교육은 예술교과목 이외의 모든 과목을 창의적으로 교육하기 위해 예술적인 방법론을 활용하는 것으로 학습 성취도를 향상시키며 긍정적인 인지 발달을 촉진시킨다.(Bamford, 백령 역, 2007: 30)

따라서 예술교육을 하려는 교사와 그 관련 업종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특히 예술교육이 가진 의미를 미적 경험에 두고, 그에 따른 철학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술이 가진 교육적 효과라는 표피적인 내용에만 관심을 가져 결국 예술이 존립해야 할 이유를 다른 분야의 공부를 위한 수단이나 도구적인 목적으로 전락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듀이는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의 교육적 가치를 제시한다. 그 중에서 미적 경험 역시 교육적 가치이다. 효율성, 사교성, 지적 관심, 성실성에 미적 취향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듀이가 제시한 이러한 교육적 가치는 이원론적 사고를 극복하는 것이며 그제서야 비로소 모든 사람이 자유로운 사고를 영위하며 그에 따른 인간적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로 효율성, 즉 자원을 사용하고 장애를 처리하는 일을 유능하게 수행하는 것이다. 둘째로, 사교성, 즉 다른 사람과의 직접적인 교우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 셋째로, 심미적 취향, 고전 형식의 훌륭한 예술을 감상하는 능력이다. 넷째로, 훈련된 지적 방법, 몇몇 양식의 과학적 업적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 다섯째로, 성실성, 다른 사람의 권리와 요구에 주의와 관심을 기울이는 것 등이다.(DE: 367)

예술이 가진 특성은 그 자체로 향유할만한 가치가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힘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사고를 듀이는 경험을 통한 예술이라는 관점으로 녹여낸 것이다.

우리가 예술로부터 모든 경험이 풍부하고 성취감 있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우리가 더 가져야할 필요가 있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여전히 예술이 그 자체로 바로 즐거운 것이라는 알게 될지도 모르며, 분명히 사실이지만 우리 모두의 삶이 더 예술과 같아진다면 그러한 현실도피자의 즐거움을 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심지어 순간의 쾌락의 근원으로써 그것들의 가치는 급격히 줄어들게 될 것이다.(Jackson, 1928: 11)

듀이는 “예술교육의 목적은 미적 경험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전 인격체로서 인간의 성장을 도와주기 위한 것이라고 정의했다. 그는 또한 예술교육은 한 두 번의 예술경험으로 인해 갑자기 인간의 삶이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의 순간과 순간이 모여 그 다음 예술 활동에 영향을 미치게 해 삶의 전반에 걸쳐 폭넓게 작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Bernstein, 정순복 역, 2012: 39) 즉, 듀이는 예술의 목표를 “미적 지식이 아니라 예술에서든 일상 생활에서든, 대중예술에서든 더욱 완성적이고 진보된 경험을 획득하는 것”(AE: 12)이라고 설명한 것이다. 또, 듀이는 “예술이 인간에게 기여하는 바는 인간 본성을 활발하게 작용시키는 데 있다고 서술한다.”(AE: 138) 이러한 예술에 관한 목표 및 특성은 곧 예술교육의 특성이자 목표가 된다.

3. 미적 경험의 특징

미적 경험⁴⁾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경험의 속성이 말해주듯이 연속적이고 계속적으로 경험이 축적되면서 상황에 따른 상호작용이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미적 경험을 하게 된다. 이처럼 미적 경험은 우리의 연속적인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인 것이다. 듀이는 몇 가지 예시를 통해 미적 경험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듀이는 자신의 아내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다음과 같은 미적 경험을 서술한다. 이 글은 매넨드(L. Menand)가

4) 미적 경험과 미적 체험은 학자에 따라 혼용되어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슈스터만은 단순한 경험과 ‘하나의 경험’에 대한 듀이의 구별은 유럽 해석학적 이론에 공통적인 ‘경험(Erfahrung)’과 ‘체험(Erlebnis)’에 대한 딜타이(Dilthey)의 구별과 명백히 평행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듀이가 자신의 예술론에서 딜타이를 참고한 것은 아니다.(Shusterman, 2002: 36) 듀이는 미적 경험이 여타의 경험과 일차적으로 구분하지 않는다 점과 ‘하나의 경험’ 또는 ‘미적 경험’을 서술할 때 다른 단어가 아닌 ‘경험(experience)’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에 착안하여 체험이라는 번역어보다는 경험이라는 번역어가 더 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하나의 경험’이 몸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이라는 측면에서 우리말의 어감상 체험이라는 표현이 더 전달력이 있다고 판단하면 혼용하여 사용할 수도 있겠다.

듀이가 겪은 일에 대해 부인에게 편지한 내용을 인용한 부분이다. 듀이는 미국 최초의 파업을 경험하고 그 광경을 직접 목격하게 된다. 그 상황에 대해 듀이가 느낀 점을 서술한 것인데 이러한 경험 역시 듀이는 ‘하나의 경험’⁵⁾이라고 말할 것이다.

나는 그와 10분에서 15분 정도 대화를 나누었을 뿐이요. 그러나 대화를 끝내고 난 후 나의 신경은 어느 때보다도 전율했고 마치 내가 가르치는 일을 그만두고 생명이 다할 때까지 그를 따라야 할 것처럼 느껴졌지. 사람들은 절대적이고 거의 광신적인 진지함과 정직함으로, 그리고 진행 중이던 송고한 결사에 대한 찬탄으로,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력을 잃었소. 단순히 미적인 측면에서 나는 이 파업이 보여준 것만큼 장대한 광경, 즉 공동의 이익을 둘러싼 광범위한 단결이 이전에 없었다고 생각한다오. 곧 정부가 개입하게 될 것이며 이 사람들은 거의 확실히 패배할 것이요. 그러나 그것은 위대한 일이며 더 위대한 일의 시작이라오.(Menand, 정주연 역, 2012: 382)

깃털같이 험거운 나뭇잎이 달빛을 받아 하나의 특이한 회백색의 모습을 드러냄으로써 이 나무는 다른 나무보다 한층 활기차게 보이고, 나와 나의 현존을 더욱 의식하게 한다. 그것은 어떤 사람이 초자연적 존재가 임재할 때, 그리고 소리가 없고 보이지 않더라도 그 존재가 그를 물끄러미 쳐다보며 그의 마음 속의 모든 생각을 꿰뚫어 보고 자신이 그의 눈 앞에 있다고 확신하게 만들 때 느끼게 되는 감정과 유사한 것이다.(AE: 35)

우리의 일상의 생활에서 미적 경험은 여러 형태로 존재한다. 예를 들어, 어느 날씨 좋은 날 오전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헤세(H. Hesse)의 작품을 읽는데 몰두하여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이러한 경험이나, 생애 처음 유럽으로, 동남 아시아로, 아메리카로 여행을 가서 현지 사람들의 세세한 움직임을 관찰하면서 무언가 강렬한 인상을 받는 경험과 같은 것이다. 집 앞에 어제는 없었던 풀잎 하나가 오늘 아침에 보였을 때 느끼는 신비로움이나 갑자기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는데 아름답게 노을 지는 모습들이 모두 미적 경험에 속한다. 제주도의 올레길을 걷거나 스페인 순례자의 길을 걸으며 매일 매일의 삶이 주어진 것에 대한 벅찬 감동을 느낄 때, 매혹적인 강의를 들으며 책의 내용이 가슴에 와 닿거나, 어려워서 잘 안 풀리는 문제

5) 듀이는 ‘하나의 경험’ 즉 ‘an experience’를 항상 이탤릭체로 서술한다. 그러면서 그 개념이 가진 특별한 점을 나타내려고 했던 것이다. 하나의 경험은 하나의 완결된 경험이라는 의미에서 완전한 경험이라는 번역 또는 완결된 체험과 같은 번역이 더 낫다는 주장이 있다. 한명희(2002: 63). 또 정순복(1996: 53)은 하나의 경험이라는 말을 미적 경험의 일차적 단계로 설명하고, 박철홍(1995: 86)은 하나의 경험을 지적이고 도덕적이며 과학적인 미적 경험이 통합된 경험으로서 가장 이상적인 경험이라고 쓰고 있다.

를 풀려고 계속 씨름하다가 이해되는 순간이 찾아온다든지 등등 이러한 삶의 경험들이 미적 경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다.

또, 동화 ‘플란더즈의 개’에서 주인공 소년이 마지막에 그 동안 애타게 보기를 원했던 한 작품을 보고 감격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소년은 항상 마을의 성당에 걸려있는 그림을 직접 눈으로 보기를 원했지만 긴 커튼으로 가려진 거대한 그림을 볼 수 없었다. 과거에는 그림 한 폭을 직접 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평소 한번도 거대한 미술품을 본 적이 없는 인간이 그림을 직접 보게 되었을 때 인간은 탄성하고 놀라운 기분에 빠지게 된다. 이러한 미적 경험은 한 순간,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자신의 삶과 대상이 상호작용하며 나타나는 것이다. 동시에 과거부터 연속적으로 그 과정에서 겪는 경험들이 녹아있어서 가능한 것이다. 그것은 그것 자체로 하나의 완성된 경험, 하나의 이야기를 엮을 수 있으며 삶에 순간이지만 하나의 단편 작품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에서 미적 경험은 “주체와 객체의 상호작용을 넘어서 그들이 상황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상황 자체와 더불어 스스로 변화하는 경험이다. 이러한 경험은 우리의 삶의 실제적 변화와 성장의 동력이 된다”(주선희, 2014: 339)고 설명할 수 있다. 여기에서 상황이란 경험의 상호작용 및 교호작용이 일어나는 세계이다. 그리하여 미적 경험은 인간의 성장에 힘을 실어주는 발판이며, 이러한 점에서 교육에 있어 미적 경험이 요구되는 중요한 이유가 된다. 왜냐하면 교육은 성장을 목표로 하는 활동이기 때문이다.

4. 하나의 경험과 미적 경험

듀이에게는 ‘하나의 경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미적 경험을 지향하는 것이 교육에서 추구해야 할 바다. 그런 점에서 듀이는 예술이 인간에게 어떠한 것이어야 하는지를 질문하고 결과적으로 예술의 회복을 주장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미적 경험을 하는 것이 예술교육의 목적임을 알 수 있다. 교육의 목적이 성장이며 나아가 민주주의⁶⁾를 위한 것이라면, 예술교육의 목적 역시 성장하는 것이며 그것은 곧 민주주의를 위한 발판으로서 소통의 방식이 된다.

6) 듀이가 자신의 철학 사상을 전개하는 초반부터 교육에 관심을 가졌던 것은 아니다. 듀이는 자신의 자녀들로부터 시작하여 이후 자신의 교수로서의 직업 등 외적 상황에 의해 교육에 관심을 가졌으며 그 최종 귀결점은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미국의 사회운동가인 애덤스(Adams)가 1889년 시카고에 설립한 기관이 헐 하우스(Hull House)이다. 헐 하우스의 설립 목적은 보다 고차적인 시민적 및 사회적 삶을 위한 중심을 제공하고 교육적이고 범애적인 기획을 시도하고 지속하며 시카고 산업단지의 조건을 탐구하고 개선하기 위한 것이었다. 듀이는 1892년 처음 헐 하우스를 방문하고 이후 애덤스와 친분을 유지하며 헐 하우스에서 강연 활동을 하기도 한다. 이때까지만 해도 듀이는 아직 정치나 사회 문제에 비교적 무관심했으나 청년 학자 듀이에게 거대 산업도시의 숨겨진 그늘들을 보여줌으로써 그의 정치, 사회의식을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강선보, 정창호, 2014: 78)

듀이는 예술가의 작품이 경험으로 발전하며 부단히 변화해나가는 동안, 우리의 인식과 지각 속에서 통일된 ‘하나의 경험’⁷⁾으로서 미적 경험을 성립시키는 것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플라톤의 『심포시온(Symposion)』과 같은 작품도 사실은 최종적인 ‘하나의 경험’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하나의 핵심적 주제로 점점 몰아가면서 주제와 관련된 흥미로운 내용들이 곁들여지며 개연성이 높아지는 것이 작품의 완성도이다. 또, 모든 완성된 ‘하나의 경험’은 하나의 결말과 종결을 향해 차근차근 나아가는데 그 과정이 어떠할지라도 ‘하나의 경험’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완성이라는 최종으로 나아가는 것이 미적인 모습을 띠고 있기 때문이며 동시에 고통을 수반하며 리듬을 가진다. 그것이 곧 미적 경험인 것이다. 듀이는 그것을 이렇게 서술한다.

투쟁과 갈등은 비록 고통스럽지만 그것들이 하나의 경험을 발전시키는 과정으로 경험된다면 그 자체로 즐거운 것이 될 수 있다. 단지 투쟁과 갈등이 거기 있기 때문이 아니라 투쟁과 갈등은 경험을 진전시키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모든 경험에는 외적인 작용, 무언가를 겪는 것이 넓은 의미에서는 무언가를 인내하는 것, 고통을 당하는 것(suffering)을 의미한다.(AE: 47-48)

마치 우리가 수영을 배워 1000m 수영을 해내려면 먼저 수영을 배우는 과정이 있으며 그 과정 안에서는 힘들고, 고통스러우며, 참아내야만 하는 시간들이 반드시 따르기 마련이다. 그 과정의 경험이 결과적으로 ‘하나의 경험’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한 편의 완성된 논문’, ‘한 편의 완성된 시나 소설’, ‘한 편의 완성된 곡’, ‘한 편의 완성된 연극’ 등 하나의 예술작품이 탄생되기까지의 모든 과정 역시 이와 같다. 그러므로 듀이는 미적 경험에는 무조건적인 기쁨과 쾌락이 동반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겪는 것이 수반되며, 단순하게 재미있지는 않다고 말한다. 이것이 미적 경험이 가지는 양가적인 특성이다. 예술이 가지는 상승하고 성장하려는 욕구는 듀이가 교육의 핵심인 성장과 통하는 것이다.

연극 <광부화가들(The Pitmen Painters)>⁸⁾을 통해 듀이가 말하는 미적 경험을 분석하는 박연

7) 영화 <쇼생크 탈출(The Shawshank Redemption)>에서 죄수들이 미적 경험을 하는 장면을 예시로 들 수 있다. 영화에서는 주인공이 몰래 음향실에 들어가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에게 평소 들을 수 없는 음악을 들려준다. 이 때 한 죄수가 자신이 무엇을 느꼈는지 담담하게 나레이션으로 보여 준다. “두 이탈리아 여자가 무엇에 대해 노래했는지 나는 지금도 모른다. 알고 싶지도 않다. 말 하지 않고 두는 게 더 좋을 때도 있는 법이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래서 가슴이 에이게 하는 어떤 아름다운 것에 대해 노래하고 있었던 것 같다. 그 자리의 누군가 꿈꿀 수 있는 것보다 그 음악은 더 높이 더 멀리 울려 퍼졌다. 아름다운 새들이 새장에서 뛰어나와 날개짓을 하며 순식간에 벽을 넘어가는 느낌.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쇼생크의 모든 사람들은 자유를 느꼈다.” 그 음악은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Le mariage de Figaro)이라는 작품이었다. 작품의 제목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만끽한 미적 경험이며, 그것이 그들에게는 자유로 표현되었다.

8) 리홀(L. Hall) 작가의 작품으로 2007년도에 초연되었다.

숙의 글을 통해 보다 설득력있는 논증을 볼 수 있다. 연극 <광부화가들>은 전혀 정규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미적 경험을 통해 예술의 의미를 이해하고 예술가로 성장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이것은 듀이가 말하는 미적 경험의 한 예시일 수 있다.

미술 교사 라이언이 광부들에게 작품을 있는 그대로 “느끼라”는 주문은 작품 외적인 지식이나 역사적 사실이나 평가, 작가의 인생 등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나 작가가 직접 말한 작품의 의도 등에 연연하지 말고 작품을 직접 경험하라는 의미일 것이다. 전문가적 지식을 강의하는 대신 직접 그림을 그려보는 것으로 그림의 의미를 알아보고자 제한한 것은 실제로 그림이 무엇인지 몸으로 직접 느끼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교육방법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러한 라이언의 제안은 생생한 경험을 통해 예술에 다가가는 방법이다. 이는 자발적 흥미와 관심을 이끌어내 생활 속에서 예술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며, 예술이 그들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는 교육이다.(박연숙, 2014: 329)

이렇듯 인간이 경험하는 경험이 가진 속성은 능동적인 요소와 수동적인 요소를 결합하여 미적인 경험에도 적용하듯이 항상 상호적으로 관계함을 말한다. 이 두 가지 속성의 작용이 분리되지 않아야 미적 경험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면은 연극 <광부화가들>의 수업장면에서 ‘제작’과 ‘감상’이 상호작용하는 경험의 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경험은 듀이가 말하는 교육적 경험⁹⁾에 해당되며 계속되는 경험의 장에서 그 영역을 확장해 나가며 자신의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다.

5. 예술교육의 시사점

지금까지 미적 경험이 예술교육에서 핵심적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임을 논의하며 미적 경험이 예술교육이라는 이름하에 이루어질 수 있는 중심적인 내용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미적 경험이 예술 교육에 있어 중요한 이유를 크게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겠다.

9) “언제나 창조적인 예술가가 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교육의 질이 교사의 질에 따르는 것이라고 할 때, 교육이 음악가나 화가나 예술가에게 요구되는 것과 동일한 질의 개인적인 열의와 상상력을 요하는 예술적 과업임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좀 더 나아질 것이다. 예술가들도 각기 다소간은 기계적이라고 할 기술을 갖추어야 하지만, 자신의 개인적인 비전을 잃어버리고 보다 형식적인 기술적 규칙에 종속되면 될수록 예술가의 수준 아래로 추락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다른 이들이 만든 청사진, 밑그림, 계획서를 따라 행하는 기술자의 수준으로 위축되는 것이다.”(MW Vol 15: 186, 양은주, 2007: 124 재인용)

첫째, 미적 경험의 교육적 가치는 그것의 인식론적 특성에 있다. 미적 경험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인식은 서술적 논리적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직관적 지각에 의하여 파악되는 인식으로서 앎의 유형으로 본다면 직접적 지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미적 인식은 단순히 직접적 인식일 뿐만 아니라 상상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아는 것이며 대상에 대한 느낌을 가지고 아는 것이다. <중략> 둘째, 미적 경험은 그 자체가 즐거운 경험, 기쁨을 주는 경험이라는 특성에 대한 교육적 관심이다. 미적 경험은 미적 즐거움을 수반한다는 사실이 중요하며, 이것은 다른 어떤 경험보다도 즐겨 참여하는 경험이기 때문에 교육적 중요성을 지닌다. 교육의 과정에서 경험을 이끌어 내는 동기가 가장 강력하게 작용하는 경험이기도 하다. <중략> 셋째, 미적 경험은 교육에서 말하는 가장 완전한 형식을 갖춘 모형적 경험인 동시에 여타의 일반적 경험을 완성하는 필수적 경험이라는 점에서 교육적 의미가 크다. 듀이에 의하면 미적 경험은 소위 하나의 완성된 경험으로써 경험이 갖추어야 할 조건을 구비한 가장 완전하고 이상적인 경험을 뜻한다. 즉, 그것이 지적 도덕적, 기술적, 과학적 경험이든, 어떤 경험이든지 충만감과 수단과 목적의 합일성을 지니고 있으며, 동시에 의미와 강도를 갖추고 있을 때, 미적 경험의 요소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육경험이 이러한 완전성을 지니려면 미적 특성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한명희, 2000: 39)

더 구체적으로 듀이의 미적 경험의 개념이 예술교육에서 필요성을 가지게 된 중요한 이유를 다음 글을 통해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다. 듀이는 칸트 미학의 무관심성 개념이 가진 난제를 해결하고 일상과 연관된 미적 경험의 의미를 밝혀냄으로써 그것이 예술교육적인 힘을 갖게 된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듀이는 예술교육이 주는 도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꽃을 감상하는 것은 토양과 공기, 습도, 씨앗의 상호작용 등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들 간의 상호작용을 알지 않고서는 꽃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역시 이론은 이해의 문제이다. 이론은 예술 작품 창작의 본성과 지각을 통한 향유의 본성을 발견이라는 것과 관계되어 있다.(AE: 18)

예술교육은 한 사람의 삶을 보다 풍성하다고 느끼게 하고 사유할 수 있게 하는 힘이 있다. 예술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인간은 살아갈 수 있지만 그 삶이 건조하고 따분할 것이다. 예술과 관련된 삶은 인간에게 지루하지 않게 하고, 활력을 찾게 하는 삶의 원동력이다. 그것은 단지 나 자신이 즐거워지기 때문만이 아니라 타인의 고통이나 기쁨을 공감하며, 그 안에서 나의 삶의 보람과 삶의 에너지도 뿜어 나오기 때문이다. 각 사람마다 자신의 개성에 따라 현재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결정하고 움직이게 하는 지렛대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물론 예술교육이 만병통치약과 같은 것은 아니지만 황무지처럼 변해버릴지 모르는 인간의 삶에 단비와 같은 촉촉함을 전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미이다.

듀이는 예술의 진정한 본성은 예술품이 아니라 예술품을 대하는 개인의 미적 경험에 존재한다고 논증하였다. 즉, 예술교육은 예술작품을 통해 학생들 개개인에게 각자의 미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은 한 인간의 삶 속에서 생생하게 살아서 의미있는 경험을 하도록 도와준다. 개인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소통하게 하는 내적 의미를 가지는 것이 미적 경험인 것이다. 이러한 미적 경험에 대한 교육이 비단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초등 교육, 중등교육의 학교에만 국한한 것은 아니다.¹⁰⁾ 예술 작품은 지향하는 바가 ‘완성’인 것이다. 예술은 속성상 완성태를 지향하며 그리하여 예술이 된다. 옥스퍼드 사전은 밀(Mill)의 말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예술이란 표현에 있어 완벽하고자 하는 노력이다.” 추가로 아널드(Arnold)는 예술을 “순수하고도 결점이 없는 기량”이라고 부른다.(Shusterman, 김광명, 김진엽 역, 2002: 90)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술은 완벽함과 결점없음을 지향하므로 그 자체가 최고의 상승점을 지향하는 역동적 성향을 담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술이 상승을 향한다는 사고는 고대 그리스의 플라톤의 작품에서도 엿볼 수 있다. 플라톤은 심포시온(Symposium)에서 예술적 속성인 ‘에로스(eros)’의 상승을 통해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문학적이고 철학적으로 묘사한다. 플라톤의 이데아론에서 ‘ 좋음(to agathon)’은 최고의 이데아(idea tou agathon)로서 자리한다. 플라톤에게 있어 ‘ 좋음’은 ‘아름다움(to kalon)’과 동일시된다. 심포시온에서 에로스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상승하는 것이다. 이처럼 상승의 욕구, 상승적 성질이 듀이가 말하는 성장과 연관된 행위이며, 예술 작품과 예술 행위가 고양된 가치로 나아가는 과정이다. 결국 그 작업 과정 안에서, 감상하는 과정 안에서 미적 경험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10) 리드 역시 대학에서의 예술의 위치에서 다윈(Darwin)의 글을 인용하여 예술교육이 어떠한 것인지 서술하고 있다. 예술교육은 한 사람의 삶이 보다 풍성하게 느끼고 사유할 수 있게 하는 힘이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예술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인간은 살아갈 수 있지만 그 삶이 건조하고 따분할 것이라는 설명을 다윈의 고백을 통해 전달하고 있다. 동시에 인간의 뇌가 활발히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인지과학적 입장에서 뇌의 퇴화를 주장하는 것도 매우 설득력있는 다윈의 설명이다. 듀이가 다윈의 영향 아래 있었다는 점에서 특히나 다윈이 말하는 예술적 의미는 시사하는 바가 더 크다. “30세 남자에 이를 때까지 밀턴, 그레이, 바이런, 워즈워스, 콜리지, 셸리의 작품과 같은 다양한 시들이 나에게 커다란 기쁨을 주었다. 그리고 학생 시절에서조차 나는 셰익스피어(Shakespeare)에게서 큰 환희를 누렸다. 그러나 근래 몇 년 동안 나는 시 한 줄 읽는 것도 참을 수 없게 되었다. 최근 셰익스피어를 다시 읽어보려고 하였으나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지루하게 여겨져서 메스꺼릴 정도였다. 또한 그림과 음악에 대한 기호 또한 잃어버렸다. 나의 정신은 사실들의 집합 속에서 보편법칙을 갈아내는 기계가 되어 버린 듯하다. 만약 다시 인생을 살아야 한다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시를 읽고 음악을 듣는다는 규칙을 만들었을 것이다. 그랬다면 퇴화된 나의 뇌 일부가 사용되어져 아마도 지금까지 활동적으로 남아 있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심미안의 상실은 행복의 상실이며, 지성에도 해를 미칠지도 모른다. 더불어 아마도 우리 본성의 감성적인 면을 쇠약하게 하여 인간의 성격에 영향을 줄 것이다.”(H. Read, 1997: 374-375, 다윈의 글을 재인용)

미적 경험은 연계로써의 세계와 함께 통하는 움직임이며 완전함으로 채우려 하는 저항이나 확장의 움직임일 수 있다. 그래서 미적 경험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그것은 어떤 한 순간이 아니며 늘 팽창하는 것이다. 미적 경험의 완전함이란 단어의 개념이 가진 경험이나 행위의 정형화된 단위에 관해서만 연관된 것이 아니라, 시간 속 경험의 완전함(Vollstaendigkeit)에 관해서도 연관된다. 경험이 시간 속에서 완전해질 때 비로소 성장(Wachstum)하는 의미 있는 교육적 경험으로 인도하게 된다. 경험은 ‘포괄적이고, 달성되는 종결’에 비유할 수 있다. 그것은 완결이라는 최종점이 예술가에 있어서 무조건적으로 결말에 도달하며 끝맺음을 하는 것만은 아니다. 언제라도 현재일 수 있는 ‘시작, 발전, 성취’를 포함하는 완결을 말한다. 듀이는 전쟁에 예술가의 전진을 비교했다. 군사의 전진에서와 같이 모든 것은 승리에 목적을 두고 주기적으로 고민하고 알아본다. 그리하여 항상 그 다음에 할 행동이 무엇인지를 예측한다.(Fuhr, 2006: 92)

미적 경험은 일상의 경험에서 녹아있는 인간의 예술적 힘인 것이다. 듀이는 현재만이 우리에게 존재하고 가장 중요한 것임을 미적 경험을 통해 강조한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듀이는 다음과 같이 허드슨(Hudson)이라는 작가의 글을 인용하며 살아있음의 순간에 대한 미적 경험의 예시를 들고 있다.

뜻밖하게 자라나는 풀밭이 보이지 않고 새 소리나 시골의 정취가 들리지 않는 곳에 있을 때면 나는 온전히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 이 세계나 인생은 자신들이 사랑할 수 있을 정도로 유쾌하거나 재미있지 않으며, 자신들은 끝까지 냉정하게 세계나 인생을 바라본다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을 때 나는 그들이 온전히 살아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또한 그들이 그 안의 것은 - 풀잎 하나라도 - 아주 변변치 않게 생각하는 이 세계를 명료하게 바라보고 있지도 않는다고 생각한다.(AE: 35)

온전히 살아있는 자에게 미래는 불길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약속이다. 우리는 미래가 가져다 줄 것에 대해 너무 자주 걱정하며, 불안해한다. 과도하게 염려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현재에 만족하지 않는다. 예술이야말로 과거로부터 현재를 강화해주고 미래가 현재의 것을 촉진하는 계기를 아주 강렬하게 촉진한다.(AE: 24)

이처럼 듀이는 미적 경험으로부터 자신의 철학을 설명한다. 예술이 가진 미적 경험의 속성은 결국 인간이 존재하는 의미에 힘을 실어주고, 인간의 삶을 역동적으로 아름답게, 살아있게 해주는 것이다. 다양한 경험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의 삶 곳곳에서 자발적이고 미적인 감흥이 일어남을 보여주며 그것이 곧 미적 경험임을 보여주고 있다.

III. 결론

예술교육의 목적은 타인의 삶과, 나를 벗어난 외부 세계의 사물들에 대한 공감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 예술교육은 그 특성상 남의 것을 베낄 수 없다. 무엇보다 예술은 다른 사람의 생각이 아닌 나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나와 타인의 작품 속에서 서로 다름을 배우게 되고 그것이 각 사람의 개성임을 이해할 때 다양성을 배우고 대화의 방법을 배우게 된다.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과 동물들, 식물들의 상태를 알게 되고 그 느낌이나 생각을 공유하여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미적 경험은 결국 사람들 사이의 소통을 목적으로 한다. 다시 말해 예술교육의 목적 역시, 소통이며 나아가 문화 민주주의가 되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주요한 특징인 대화와 토론, 표현의 자유의 밑바탕에 예술교육이 가진 힘이 있다.

그리하여 궁극적으로 두 가지 철학이 있을 따름이다. 그 중 하나는 그 모든 불확실성, 신비, 회의, 미숙한 지식에도 불구하고 삶과 경험을 받아들이며, 그 자체의 성질들을 자신에게 심화하고 강화하기 위하여, 다른 하나는 상상력과 예술에 대하여 그 경험을 자신에게 향하도록 하는 것이다.(AE: 41)

이처럼 듀이는 예술에 대한 미적 경험이 스스로 각자 자기 자신에게 되돌아오는 것임을 확인한다. 무엇보다 미적 경험을 하는 존재는 타인이 아닌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놓칠 수 없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미적 경험이 연속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 그러한 맥락에서 가능한 것이다.

듀이의 예술에 대한 기획은 인간의 삶에 희망을 제시한다. 듀이는 『경험으로서의 예술』 후반부에서 예술이 가진 사고의 힘이 인간에게 있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들 사이에 의사소통을 가능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예술교육이 그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는 미래지향적인 마무리를 하고 있다. 듀이는 인간 사이의 소통, 자유로운 의사 표현, 타인을 존중하는 문화, 민주주의 체제의 구현 등이 예술적으로 사고하는 인간의 모습 속에서 실현가능할 것임을 긍정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것이 현재를 살아가는 인간에게 스스로 살아있다고 느끼며 생생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인간의 가치를 보여줄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이처럼 듀이가 제시한 살아있음을 위한 예술론은 예술교육이 지향해야 할 바를 무엇보다 잘 알려주고 있다. 미적 경험이 가진 생생하고 역동적인 힘이 예술교육에 스며들고, 삶의 모습에서 구현되는 것이 듀이가 예술에서 발견한 희망이며, 인간의 예술적 행위에서 나타난 인간 본성의 현재적 모습이다.

참고문헌

- 강선보·정창호(2014). 한국의 다문화 교육을 위한 철학적 모색 -존 듀이의 철학을 중심으로. 철학연구, 49. 67-103.
- 김상봉(2004). 학벌사회: 사회적 주체성에 대한 철학적 탐구. 서울: 한길사.
- 박연숙(2014). <광부화가들>과 경험으로서의 예술- 존 듀이 철학의 경험 개념에 근거하여. 인문과학연구, 41. 323-343.
- 박철홍(1995). 듀이의 ‘하나의 경험’에 비추어 본 교육적 경험의 성격: 수단으로서의 지식과 내재적 가치의 의미. 교육철학, 13. 81-109.
- 박철홍(2011). 듀이의 경험개념에 비추어 본 사고의 성격: 이성적 사고와 질성적 사고의 통합적 작용. 교육철학연구, 33(1). 79-104.
- 양은주(2007). 프래그머티즘 미학에 기초한 “예술적 교사” 이해: 초등교육을 중심으로. 교육철학연구, 40. 109-137.
- 이강서(2000). 플라톤의 PAIDEIA 이념: 『국가』와 『법률』을 중심으로. 대동철학, 8. 75-91.
- 주선희(2014). 소통으로서의 사랑: 듀이의 미적 경험을 중심으로. 철학연구, 130. 337-361.
- 한명희(2000). 대중예술에 대한 교육학적 숙고. 교육철학연구, 23. 27-50.
- 한명희(2002). 교육의 미학적 탐구. 서울: 집문당.
- Bamford, A.(2006). *The wow factor: global research compendium on the impact of the arts in education*. 백령 역(2007). 예술이 교육에 미치는 놀라운 효과: 세계 예술교육 현장 리포트. 파주: 한길아트.
- Bernstein, R. J.(1996). *John Dewey*. New York: Washington Square Press, 정순복 역(2012). 존 듀이 철학 입문. 서울: 예전사.
- Dewey, J.(1916). *Democracy and Education: The Middle Works, (1899-1924)*. Vol. 9. Ed, by Jo Ann Boydston.(2008) Carbondale, Ill.: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Press.
- 민주주의와 교육. 이흥우 역(1996). 서울: 교육과학사. 민주주의와 교육. 김성숙·이귀학 역(2008). 서울: 동서 문화사.(DE)
- _____(1934). *Art as Experience: The Later Works, (1925-1953)*. Vol. 10, ed, by Jo Ann Boydston. Carbondale, Ill.: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Press, 2008. 경험으로서의 예술. 이재연 역(2003). 서울: 책세상.(AE)
- Fuhr, T.(2006). *Wahrnehmung und ästhetisches Urteil bei Herbart und Dewey*. Prange, K.(2006). Herbart und Dewey. Jena: Iks Garamond, Edition Paideia. 73-97.
- Jackson, P. W.(1998). *John Dewey and the Lessons of Art*.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Menand, L.(2001). *The Metaphysical Club*. 정주연 역(2006). 메타피지컬 클럽. 서울: 민음사.
- Read, H.(1945). *Education through Art*. 황향숙 외 역(2008). 예술을 통한 교육. 서울: 학지사.

Shusterman, R.(2002). *Pragmatist aesthetics*. 김광명, 김진엽 역(2010). 프라그마티즘 미학: 살아있는 아름다움, 다시 생각해보는 예술. 서울: 북코리아.

접수일(2016년 8월 8일), 심사일(2016년 9월 8일), 게재확정일(2016년 9월 8일)

박주희(제1저자 및 교신저자)

현 소속 및 직위 : 한국체육대학교 시간강사

전공 및 관심분야 : 존 듀이 교육철학, 인문교양교육, 예술교육

이메일 : ever3210@daum.net

ABSTRACT

Art Educational Value of Aesthetic Experience

Park, Joo-hee(Korea National Sport University)

This thesis focuses on revealing what art education should be aimed at by clarifying the concept of aesthetic experiences based on J Dewey's aesthetic theory and educational thoughts. Characteristics and desirable directions of art education as educational objectives will be deduced by showing educational concepts and characteristics.

By connecting the correlation between education and art with aesthetic experiences, art education derived from aesthetic experiences suggests abundant human lives. This further reveals that art education is capable of playing a pivotal role in a democratic society.

Intrinsic, conceptual significance of aesthetic experiences is discovered while revealing educational connotations. Life experiences and aesthetic experiences are used similarly in terms of meaning, which aims at educational development. When links between aesthetic experiences and art education are possible, it will create educational value from such aesthetic experiences.

Art education based on aesthetic experiences has implications which include the following: First, complete experiences clarify the meaning of aesthetic experiences. Second, problems of current art education are revealed if art education aims at aesthetic experiences. Third, creative and imaginative power of human nature is suggested by proving that art is based on life experiences.

Key Words : aesthetic experience, art education, J. Dewey, an experience, democracy